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마치고

박 관 민

(주)중앙공영 주임

우리 회사는 주택건설업체이다. 줄곧 지방에서 공사를 해오다가 이제 지방공사를 자제하는 전직원의 의견에 따라 대도시에서만 공사를 하고 있다.

과거 계속 지방에서 공사를 해보니 지방은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분위기에서 직원들도 안전에 대한 타성에 젖어있다 보니 안전상에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그리하여 소장 및 안전관리자·관리책임자들이 각성하여 더 많은 교육과 관심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안전담당자들과 관리책임자들에 대한 교육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체교육은 무리가 있고 위탁교육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사소한 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항상 위험한 상황이 전개된다는 전제하에 우리 주위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생각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 보고 있는데 잠시 방심을 하여 상처를 입는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발주자 시공사에서도 우리 가족들이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으니 좀더 안전한 방법으로 행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뜻이 있으면 길은 가까이 있다는 것을 건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에서 확실히 인식하였다.

본인은 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성과정에 대하여 몇가지 건의하고자 한다.

1. 교육 입학자격이 4년제 대학만이 아닌 2년제 전문대학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도 주어졌으면 한다.

2. 안전관리자 선임범위에 있어 교육수료자는 100억원 미만에서만 안전관리자로 활동할 수 있는데 일반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이 200억에서 500억 사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사에는 참여치 못하는 애로점이 있다.

3. 현재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라고 활용하는 안전관리자(산업안전기사)에도 문제가 있다. 경력도 미미하고 설계도면도 볼 줄 모르고 그렇다고 일에 대한 기술도 월등하지 못하는데 무슨 기술교육이니 점검이니 앞서가는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겠는가.

현장의 안전관리자의 위상을 높이거나 실질적인 안전관리자의 활용을 위해서는 경력 5년 이상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인다면 건설현장에서 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기사가 아닌 건설안전기사만이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